

## 당대 이전의 오심 증상 표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sup>1</sup>  
고복영<sup>1</sup> · 장재순<sup>1</sup> · 김기왕<sup>1\*</sup>

### Literal expression of nausea in medical classics written until Tang dynasty

Ko Bok-young<sup>1</sup> · Chang Jae-soon<sup>1</sup> · Kim Ki-wang<sup>1\*</sup>  
<sup>1</sup>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 : Osim(惡心) stands for nausea which usually precede vomiting(嘔吐). Although it is very common symptom, we can't find the word Osim in some ancient classics. So we tried to find when it had appeared, and what had been its substitute in former medical classics.

**Material and Methods** : The digitalized text in Zhonghuayidian(中華醫典) was used for text search. The text search was performed chronologically.

**Results** : We found that there had been yokto(欲吐), yokgu(欲嘔), geongu(乾嘔), beon(煩), beonsim(煩心), simbeon(心煩), min(悶), ongi(溫氣) as the precedent expression of osim(惡心), which had appeared in *Jebyungwonhuron*(諸病源候論, 610) for the first time.

**Conclusion** : Until Tang dynasty, there had been kinds of alternative expressions correspond to osim(nausea).

**Key words** : Osim, Nausea, *Jebyungwonhuron*, Alternative expression, Symptom.

## I. 서론

오심(惡心)은, 구토를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토가 발생하려는 느낌이 감지되는 상태로서 고문헌에도 흔히 보이는 증상명이다. 하지만 『황제내경』이나 『상한론』과 같은 고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오심’이란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심이란 말이 없었을 때 고인들은 오심 증상을 어떠한 말로 표현했을까? 또한 언제부터 오심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재료와 방법

원문 검색을 위하여 『중화의전(中華醫典)』<sup>1)</sup>에 수록된 원문 자료가 사용되었다. 원문 검색은 『오심이

\* 교신저자 : 김기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E-mail : kimgiwang@hanmail.net Tel : 051-510-8466  
접수일(2012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병방(五十二病方)』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대순으로 진행하였고 오심이란 표현이 발견될 때까지 검색을 반복하였으나, 오심이란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 이후의 문헌도 임의로 일부 검색하여 오심이란 증상명이 학계에 정착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고대의 문헌에서 오심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심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토(吐)와 구(嘔)란 표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검색어로 하여 관련 원문 검색을 시작하였고, 오심에 해당하는 고대의 표현, 예를 들어 번(煩)과 같은 표현이 확인된 후에는 이를 검색어에 추가하여 원문 검색을 진행하였다. 검색 과정에서 발견된 주목할 만한 문장들은 표현의 유사성과 문맥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후 의미를 재검토하였다.

### III. 결 과

#### 1. 오심의 대체 표현

오심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고인들은 오심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이를 어떠한 말로든 표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오심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이 문헌에도 남아 있을 텐데 아래에서 그러한 표현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1.1 욱토(欲吐), 욱구(欲嘔)

어떤 현상을 표시할 명사가 확립되기 전에 인간은 이를 동사나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표현으로 묘사한다. 오심이란 말이 나타나기 전에도 구(嘔)나 토(吐)란 표현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하고자하다’는 뜻의 욱(欲)자와 결합하여 오심 증상을 표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고대의 문헌에서 욱토(欲吐), 욱구(欲嘔)란 표현은 오심의 대체 표현으로서 자주 나타난다.

『황제내경』의 경우 욱구(欲嘔)란 표현이 여러 차례 나타나며<sup>2)</sup> 욱토(欲吐)란 표현도 보인다<sup>3)</sup>.

1)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 心痛引腰脊, 欲嘔, 取足少陰。(靈樞·雜病)

脾熱病者, 先頭重煩痛, 煩心顏青, 欲嘔身熱。(素問·刺熱)  
其但熱而不寒者, …(中略)… 手足熱而欲嘔, 名曰癰瘧。(素

#### 1.2 건구(乾嘔)

오늘날 건구(乾嘔)는 오심과 구분되어 사용되는 증상명이지만 초기에는 오심과 구분되지 않는 증상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건구는 『황제내경』에 나타나지 않고 『상한론』과 『금궤요략』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조문<sup>4)</sup>을 보면 명치가 메스거리는 증상(心下悶)과 함께 건구 증상을 나란히 묘사하고 있어 이곳의 건구가 오심 증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구’가 때로 오심을 대신한 상황은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610)』에서 단지 메스거림뿐만 아니라 구토의 동작까지 동반한 증상으로 건구를 명확히 규정<sup>5)</sup>하기 전까지 이어졌으리라 생각된다.

#### 1.3 번(煩), 번심(煩心), 심번(心煩), 민(悶)

고의서에서 번(煩)은 신체 국소의 열감이나 가슴에서 느껴지는 열감을 동반한 답답한 느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지만 일부는 오심을 대신하는 말로도 쓰였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상한론』에서는 소시호탕의 적응증을 설명하면서 “말이 없이 밥을 먹으려 하지 않고 ‘심번(心煩)’하여 곧잘 구토를 하거나 혹은 ‘흉중이 번[胸中煩]’하지만 구토를 하지는 않고”라고 하였는데<sup>6)</sup> 이를 보면 ‘심번’과 ‘흉중번’이 구토에 선행하는 상태 내지는 증상, 즉 오심에 해당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소음병의 증상을 설명하면서도 “토하려 하지만 토하지 못하고 ‘심번(心煩)’하며”라고 하여<sup>7)</sup> 심번이, 구역감이 있으나 구토

問·瘧論)

少陽之勝, 熱客於胃, 煩心, 心痛, 目赤, 欲嘔, 嘔酸, 善飢, 耳痛, 溺赤, 善驚, 譫妄。(素問·至真要大論)

3) 厥陰之勝, 耳鳴頭眩, 憤憤欲吐, 胃脘如寒。(素問·至真要大論)

4) 產後風續之數十日不解, 頭微痛, 惡寒, 時時有熱, 心下悶, 乾嘔, 汗出, 雖久, 陽旦證續在耳, 可與陽旦湯。(金匱要略·婦人產後病脈證治)

5) 乾嘔者, 胃氣逆故也。但嘔而欲吐, 吐而無所出。(諸病源候論·嘔噦病諸候)

6)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中略)… 嘔而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中略)… 或咳者, 小柴胡湯主之。(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

7) 少陰病,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自利而渴者, 屬少陰也。(傷寒論·辨少陰病脈證并治)

를 하지는 않는 상태, 즉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또한 『금계요략』에서 회충이 횡격막을 자극하면 ‘번(煩)’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였는데<sup>8)</sup> 번과 구(嘔)를 대비한 점, 번이 음식을 먹은 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오심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세기 왕숙화(王叔和)의 저작 『맥경(脈經)』에는 『상한론』의 많은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여기에도 오심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번(煩)’ 자가 여러 차례 나타난다<sup>9)</sup>.

번(煩)이 오심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인 것은 송대 이후까지 이어진 일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송대의 저작인 『황제명당구경(黃帝明堂灸經)』에서 자궁혈(紫宮穴)의 주치 증상을 설명하면서 ‘음식불하(飲食不下)’, ‘구역(嘔逆)’, ‘상기도혈(上氣吐血)’과 ‘번심(煩心)’을 나란히 소개하였는데<sup>10)</sup> 이를 보면 북송시기까지도 종종 번심(煩心)이란 말이 오심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번(煩)이 ‘열감’을 뜻하는 말 이외에 ‘오심’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게 된 데에는 번이란 글자에 ‘속이 편치 않음’, 특히 여러 가지 ‘자각적 불안정감’<sup>11)</sup>에 해당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다. 흉복부에서 느껴지는 답답한 느낌을 표현하는 ‘민(悶)’자와 번(煩)이 어우

러져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그 점이 좀 더 분명해진다. 일례로 『황제내경』에서는 졸심통(卒心痛)의 증상을 설명하며 ‘선구(善嘔)’ 앞에 ‘번민(煩悶)’이란 표현을 제시하였는데<sup>12)</sup> 이는 번에 ‘민’과 밀접한 의미, 즉 명치가 편치 않고 울렁거림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생각된다. 『천금익방(千金翼方, 682)』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다수 확인된다<sup>13)</sup>. 『천금요방(千金要方)』에는 ‘번조(煩躁)’와 ‘민란(悶亂)’이 어우러져 오심 증상을 묘사한 예<sup>14)</sup>도 보인다.

#### 1.4 번(變), 변구(變嘔), 구변(嘔變)

고대에는 ‘번(變)’ 자 역시 오심 또는 오심과 구토를 아우르는 말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황제내경』에서 그러한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厥論)」에서는 ‘구변(嘔變)’이란 표현<sup>15)</sup>을, 「오미론(五味論)」에서는 ‘변구(變嘔)’란 표현<sup>16)</sup>을 사용하여 오심·구토를 표현하였다.

#### 1.5 온기(溫氣)와 온온(溫溫), 울울(兀兀), 케케(憤憤), 울울(鬱鬱)

고문헌에서는 오심 증상을 나타낼 때 종종 그 양상을 묘사하는 의태어를 덧붙이곤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온온(溫溫)<sup>17)</sup>, 울울(兀兀)<sup>18)</sup>, 울

8) 蛔厥者，當吐蛔。今病者靜而復時煩，此爲蟄藏，蚘上入膈，故煩。須臾復止，得食而嘔，又煩者，蚘聞食臭出，其人當自吐蚘。(金匱要略·跌蹶手指臂腫轉筋陰狐疝蟲病脈證治) ※ 이와 거의 동일한 문장이 『상한론·변결음병맥증병치(傷寒論·辨厥陰病脈證并治)』에도 보인다. 또한 이를 전제한 『천금익방·상한하·결음병상(千金翼方·傷寒下·厥陰病狀)』에도 나타난다.

9)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太陽病，過經十餘日，心下溫溫欲吐而胸中痛，大便反澀，其腹微滿，鬱鬱微煩，先時自極吐下者，與承氣湯。不爾者，不可與。欲嘔，胸中痛，微澀，此非柴胡湯證，以嘔故知極吐下也。(脈經·病不可汗吐下以後證) 이 단락의 문장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울울미번(鬱鬱微煩)’이라 표시된 증상이 뒤에서는 ‘옥구(欲嘔)’라고 바뀌어 표현되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번(煩)이 오심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10) 紫宮一穴，在華蓋下一寸陷者中，仰而取之。灸七壯。主飲食不下，嘔逆煩心，上氣吐血，及唾如白膠。(黃帝明堂灸經·正人形)

11) 현대의 우리말 표현 ‘벌떡증이 난다’가 번(煩)의 이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12) 熱爭則卒心痛，煩悶善嘔，頭痛面赤無汗。(素問·刺熱)

13) (白玉湯)治婦人傷丈夫，苦頭痛欲嘔心悶。(千金翼方·婦人·損傷)

(鴨通湯)主散發，熱攻胸背，嘔逆煩悶，臥輒大睡乘熱，覺四肢不快，寒熱往來。(千金翼方·補益·解散發動) 傷胃者，因飲食大飽之後，胃中冷則不能消化，便煩悶，強嘔，吐之物與氣共上衝蹙傷裂胃口，血色鮮赤，腹中絞痛，自汗出。其脈緊而數者，爲難治也；吐之後體中但奄奄然心中不悶者，輒自愈。假令煩躁，心中悶亂，紛紛欲吐，顛倒不安，醫者又與黃土湯、阿膠散，益使悶亂，卒至不救，如此悶者，當急吐之。(千金翼方·雜病·吐血)

(大豆屑)用藥多少法：……心悶欲嘔吐，項強，欲陰雨即發者，八兩，酒二斗。(千金翼方·萬病·總療萬病)

14) ……心中不悶者輒自愈。假令煩躁，心中悶亂，紛紛嘔吐，顛倒不安，醫工又以黃土湯、阿膠散，益加悶亂，卒致不濟，如此悶者，當急吐之。(千金要方·臍腑方·吐血)

15) 少陰厥逆，虛滿嘔變，下泄清，治主病者。(素問·厥論)

16) 苦走骨，多食之，令人變嘔。(靈樞·五味論)

17) 心氣實，則小便不利，腹滿，身熱而重，溫溫欲吐，吐而不出，喘息急，不安臥。(中藏經·論心臍虛實寒熱生死逆順脈證之

울(鬱鬱)<sup>19</sup>, 궤궤(憤憤)<sup>20</sup> 등의 표현이 있다. 이들은 모두 오심에 수반되는,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명사화하여 ‘온기(溫氣)’라고 표현한 예<sup>21</sup>도 보인다. 이 예에서 ‘온기’는 오심과 동의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알아본 오심의 여러 가지 표현 외에 기역(氣逆), 역기(逆氣) 등도 때에 따라 오심 및 구토의 뜻으로 사용되었다<sup>22</sup>. 다만 기역이나 역기란 표현은 오심이나 구토를 한정적으로 지칭한 표현은 아니고 인체의 상부로 무엇인가가 올라가는 병적인 현상을 두루 지칭하는 단어였다고 생각된다.

## 2. 오심이란 표현의 출현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수대 이전의 문헌에는 오심(惡心)이란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sup>23</sup>. 수당 교체기의 저작인 양상선의 『황제내경태소(黃帝內經太素)』에도 오심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심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비슷한 시기의 문헌인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610)』이다.

『제병원후론』의 「구열병제후(嘔嘔病諸候)」에서는 구토와 유사하거나 연관이 있는 여러 증상들을 자세히 구분하였는데 여기에는 건구(乾嘔), 구열(嘔嘔), 구토(嘔吐), 열(噦), 애초(噎醋), 오심(惡心)이 포함된다. 여기서 오심은 비로소 구토 및 건구와 다른 별

개의 증상으로 분류되었다. 이곳의 설명을 토대로 오심과 구토, 건구를 구분해 보자면 구토와 건구는 위의 반응으로 토출의 동작이 나타나는 증상인 반면 오심은 토하려는 느낌만 있고 토출의 동작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병원후론』에 뒤이어 등장하는 『천금요방(千金要方, 652)』에도 오심이란 표현이 등장한다<sup>24</sup>. 즉, 당대에 이르러 오심이란 표현은 점차 욕토(欲吐), 번심(煩心) 등 종래의 표현을 대체하여 의서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심이란 표현이 의서에 정착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일례로 북송 시기의 저작 『황제명당구경』에서도 오심이란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여전히 오심을 ‘번심(煩心)’으로 표현하였다<sup>25</sup>.

## IV. 고찰

오심이란 말은 혐오감을 나타내는 오(惡) 자(예를 들어 ‘羞惡之心’과 같은)가 종래의 대체 표현인 ‘번심(煩心)’과 동일한 구조로 심(心) 자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찍이 명대의 황보중(皇甫中)이 잘 설명한 바 있다<sup>26</sup>.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확인한 범위에서 오심이란 표현은 『제병원후론』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제병원후론』에서도 ‘오심’이란 새로운 증상명이 어떻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 뜻에서 오(惡)자와 심(心)자를 결합하여 구역감을 표시하는 단어를 만든

法)

18) 胃既傷, 則 …(中略)… 兀兀欲吐而惡食。(脾胃論·飲食傷脾論)

19) 太陽病, 過經十餘日, 心下溫溫欲吐而胸中痛, 大便溏, 其腹微滿, 鬱鬱微煩, 先時自極吐下者, 與承氣湯。(脈經·病不可汗吐下以後證)

20) 厥陰之勝, 耳鳴頭眩, 憤憤欲吐, 胃隔如寒。(素問·至真要大論)

病人胸中似喘不喘, 似嘔不嘔, 似噦不噦, 徹心中憤憤然無奈者, 生薑半夏湯主之。(金匱要略·嘔吐噦下利病脈證治)

21) (皮茹)微寒, 主嘔嘔, 溫氣, 寒熱, 吐血, 崩中, 溢筋。(千金翼方·本草·木部中品·皮茹)

22) 예: (半夏湯)治逆氣心中煩悶, 氣滿嘔吐氣上方 (千金要方·胃腑方·嘔吐噦逆)

23)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1613)』에는 ‘중경(仲景)의 책에서 인용하였다는 ‘오심’에 관한 설명이 등장한다(東醫寶鑑·雜病·嘔吐·惡心乾嘔의 生薑半夏湯 注文). 그러나 이 문장은 현재의 『상한론』과 『금궤요략』에 보이지 않는다.

24) 虎肉, 味酸無毒, 主惡心欲嘔, 益氣力, 止多唾。(千金要方·食治方·鳥獸)

七氣者, …(中略)… 寒氣即嘔逆惡心, 熱氣即說物不亮而迫, …… (千金要方·肺臟方·積氣)

25) 紫宮一穴, 在華蓋下一寸陷者中, 仰而取之。灸七壯。主飲食不下, 嘔逆煩心, 上氣吐血, 及唾如白膠。(黃帝明堂灸經·正人形)

大都二穴, 在足大趾本節後陷者中。灸三壯。主熱病汗不出, 手足逆冷, 腹滿善嘔吐, 目眩煩心, 四肢腫病。(黃帝明堂灸經·正人形)

26) 蓋惡者, 畏惡也, 當作出聲。惡心者, 想見飲食即有畏惡之心也。若作善惡之惡, 則詞理不通矣。(『雜病廣要』에 수록된 『明醫指掌』 인용문. 단, 현행본 『명의지장』에는 이 문장이 보이지 않음)

것인지 등 어문학적 배경 설명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이른 시기에 오심이란 말이 성립되었고 『제병원후론』은 비교적 일찍 이를 증상명으로 채택하여 수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제병원후론』에 앞서는 ‘오심’을 소개한 문헌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진전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한편李玉清의 연구<sup>27)</sup>에 따르면 본 논고에서 언급한 오심의 대체 표현 이외에 당대를 위주로 하여 한 때 열(噦)이 건구라는 의미로 사용<sup>28)</sup>된 시기가 있다고 한다.

또한 趙家棟의 연구<sup>29)</sup>에 의하면 ‘변(變)’이 오심 또는 구토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의서 이외의 고대 문헌, 예를 들어 한역 불경에서도 그 예를 다수 찾아볼 수 있으며, ‘변’이라는 글자가 그러한 의미로 문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이 글자가 ‘반(痲)’의 음차자(音借字)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李心機는 『상한론』의 여러 조문에서 변(煩)이 오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sup>30)</sup>. 본 논고에 적었듯이 이는 수긍할 만한 주장이며 『상한론』 이외의 당·송대까지에 걸쳐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번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변(煩)과 변(變)을 포함하여 기타 다양한 표현들이 당대 이전의 문헌에 오심 증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V. 결 론

본 논고에서는 당대 이전의 주요 한의학 문헌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오심(惡心)이란 말은 『제병원후론(610)』에

처음 나타나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대체 표현이 오심 증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둘째, 당대 이전에 오심이란 말을 대신했던 표현으로는 욱토(欲吐), 욱구(欲嘔), 건구(乾嘔), 번(煩), 번심(煩心), 심번(心煩), 민(悶), 온기(溫氣) 등이 있으며 오심의 상황을 표현하는 의태어로서 온온(溫溫), 궤궤(憤憤), 울울(鬱鬱) 등이 사용되었다.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를 통하여 오심이란 말이 의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어떻게 그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1. 任應秋 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 <논문>

1. 譚代龍. 試論“變”有“嘔吐”義及其原因. 語言研究, 2006. 26(1). pp.116-118.
2. 李心機. 說“煩”. 首屆國學國醫岳麓論壇暨第九屆全國易學與科學學會研討會、第十屆全國中醫藥文化學會研討會論文集. 2007. pp.258-259.
3. 李玉清. “噦”義演變考.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 4(2). pp.108-110.
4. 趙家棟. “變”有“嘔吐”義探因.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 (6). pp.12-15.

### <기타 매체>

1.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27) 李玉清. “噦”義演變考.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 4(2). pp.108-110.

28) 예를 들어 활수(滑壽)의 『난경본의(難經本義)』에서는 “噦, 乾嘔也.”라고 하였다.

29) 趙家棟. “變”有“嘔吐”義探因.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 (6). pp.12-15.

30) 李心機. 說“煩”. 首屆國學國醫岳麓論壇暨第九屆全國易學與科學學會研討會、第十屆全國中醫藥文化學會研討會論文集. 2007. pp.258-259.